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동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으로, 급속한 사막화가 진행되는 황무지 바가누르 지역. 5월 21일부터 이곳에 대한항공 신입직원 102명이 3차에 걸쳐 13일간 나무 심기 활동에 나섰다. '대한항공 숲'이라 명명된 이 지역에, 한국과 몽골을 잇는 '우호와 희망의 나무'로 자갈 포플러 묘목 3천그루를 심어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황사(黃砂) 예방을 위한 방편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많이 나타나는 황사는 주로 중국 북부와 몽고의 사막지역의 황토지대에서 바람에 의해 하늘 높이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가 그 발원이다. 그 중 50% 정도가 편서풍 또는 북서풍을 타고 먼거리까지 수송되어 한국, 일본, 태평양(하와이 등) 등에 침적된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인 서기 174년 음력 1월 신라에 "흙가루가 비처럼 떨어졌다"는 황사에 대한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자주 나온다. 중앙아시아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1년에 3-4차례 오던 황사가 최근 20여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황사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국내에서는 황사경보체제를 갖추고, 국외로는 발원지에 나무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기록이 나오는 황사현상에 대해,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 그것은 황사현상의



불자 세상보기

배 광 식
서울대치의학과 교수

사막에 나무 심은 뜻

인연과(因緣果)가 밝혀졌다. 180만년 전에 형성된 황토지대인 로스(loess)층을 인(因)으로 바람을 연(緣)으로 하여 황사(黃砂)의 과(果)가 생긴다.

이렇게 인연과를 확연히 알면 대책이 나올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인(因)을 없애거나, 연(緣)을 바꾸고, 직접적으로는 과(果)를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황사경보가 지역적 대책이라면, 발원지인 황토지대에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부처님께서 '중중무진(重重無盡)의 법계연기

(法界緣起)를 말씀하셨고, '북경의 가려진 한 나비의 가벼운 날개짓이 태평양의 태풍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가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심중(心動)을 가지고 있다.

황사현상의 인연과를 모르는 신라 사람이란 면 '몽골에 가서 나무 심는 것과 우리나라의 황사방지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는 부처님께서 보리수 하를 떠나, 5비구에게 사성제(四聖諦) 곧 고집멸도(苦集滅道)를 밝힌 것이다.

사성제 가운데 '고'와 '집'은 세간의 유전연기(流轉緣起)에 따른 인과(因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속한 세상이 삼계육취(三界六趣)는 모두 고통으로서 여러(諸)의 결과(果)라는 고제(苦諦), 이 고토(苦)의 원인은 탐(貪)과 진(瞋) 등의 번뇌와 선악의 모든 행위로서 이들이 세상의 고통을 일으키므로(集) 여러(諸)의 원인이라는 집제(集諦)가 그것이다.

'말'과 '도'는 출세간의 환멸연기(還滅緣起)에 따른 인과이다. 즉 미혹을 벗어나서 깨달은(悟) 과(果)인 생사의 고통을 여인 열반인 열제, 이 열반에 통하는 팔정도는 깨달음의 인이라는 도제가 그것이다.

인과의 순서대로라면 집고도멸인데, 왜 고집멸도도 과를 인 앞에 세웠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는 보기 쉽고 인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과를 먼저 보여 이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한 후, 그 원인을 풀어 없애게 함이 며, 또는 열반의 묘한 과(果)를 먼저 들어 원하게 한 후 그 길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황사도 마찬가지다. 인과를 알았으니 대책을 세울 일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한국불교는 환경보존을 위한 명분과 실리의 양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불교환경운동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활동으로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불교환경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알다시피 불교환경운동은 이 시대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기본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한다. 그 전략으로서는 불교의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한 불교적 환경관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는 길이고, 전술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으로서 그 밑바탕은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지속성과 연대감을 갖는 활동으로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내실화와 사회적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불교환경운동은 불교적 장점을 살리는 활동이 되기 보다는 관심있는 일부 사부대중만의 잔치였거나, 일과성의 행사로 치우친 점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불교환경운동의 내일

불교환경운동에 대한 근원적인 정체성에 대한 모색도 없이 즉각적인 대응으로 사안에 치중하다보니 실패의 자성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그러들거나, 단순한 일회성의 행사만으로 끝나게 되는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활동의 터전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이 시대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더불어 같이 해야 하는 불교환경운동은 일회성 활동이 아니라, 이 시대의 불자들이 모두의 의식과 실천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삶이고, 지금의 이 자리를 정토(淨土)로 만들어 가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불교환경운동은 재검토해 보면서 불교계의 환경운동의 조직화와 체계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부족하고, 미비하다라도 이 시대 새로운 실천활동으로서 다시금 사부대중의 관심과 책임지는 자세로 지속적인 활동이 계속되기를 고대하게 된다.

■ 이병인(법안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국민의 눈

나라를 위해 벼슬에 있더라도 탐욕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에만 매달려서도 안될 것이며, 오욕에 빠지거나 청탁에 개입해서는 더욱 안된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벼슬에 있을지라도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다. <불반니행경>

"저 의원은 오늘도 즐기고 있네."
지난 5월 24일 국회가 직접 운영하는 국회방송(NATV)이 개국했다. 국회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생하게 전달돼 국민이 국회활동을 평가하는 '인방 감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앞으로 국회방송은 본회의와 청문회 등 국회 내 거의 모든 의사현장을 지역 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을 통해 하루 16시간 동안 생중계한다. 국회의원들로서는 '엄한 시어머니'를 두게 된 셈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방송 개국으로 의원들의 회의 불참 및 부적절한 발언, 욕설, 폭력 등 그간 의사당에서 벌어졌던 각종 구태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곧 이 권싸움에 매몰되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고, 의정활동은 도의 시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표를 얻어 국회 재진입에 성공했던 의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동안 비리와 폭력, 공권력 남용 등으로 얼룩진 국회를 수 없이 접해왔던 국민들로서는 자연히 국회의 탈락진 모습을 바라게 된다.

<중일야합경>에서는 "관리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백성들도 법답지 않게 행동하며, 백성들이 법답지 않게 행동하면 군인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국회방송이 '국회를 인방으로, 국민을 국회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곳'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여수영(여재부 기자)

특별기고 '불미전'의 '현대 부문' 제외에 대해

불교미술전은 이제까지 전통과 현대 불교미술로 나누어 공모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대 불교미술 분야를 폐지하고, 전통 불교미술만을 공모한다고 한다.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는 조치에 아연할 뿐이다. 실상이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본다.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지만, 미술은 시대를 드러내는 예술이다. 2000년대를 사는 예술가는 2000년의 예술을 만드는 것이지, 1000년전 신라시대, 또는 고려시대의 미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종교미술이 전통을 중시한다는 것은 하지만 그 전통은 오늘을 위한 전통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미술을 만들어야 한다. 과거만 있고 현재가 부재한 미술은 불가능하다. 오늘의 미술은 오늘을 반영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불교미술은 이 시대가 투영된 불교미술이어야 한다. 전통 불교미술만이 진정한 불교미술이란 생각은 큰 잘못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변화 없는 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변화한다. 전통만의 고집은 변화의 거부이고 정체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불미전은 이 세대의 불교미술

을 보여줘야 한다. 전통만 있는 미술은 박물관의 몫이다. 그러나 그간 불교미술전을 회고해보면 전통 불교미술과 현대 불교미술의 간극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전통 불교미술 분야는 유연성이 적어 경직됨을 느꼈고, 현대 불교미술은 질과 양면에서 크게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작가들의 노력으로 풍요로운 불교미술을 기대해왔을 뿐이다.

전통과 현대의 불편한 공존은 이러한 간극의 커다란 차이에서 왔다. 전통 불교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근현대에 있어서 이종섭·장욱진의 작품에서, 유경재, 하인두의 추상회화에서도 불교적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다. 전성우의 만다라, 이월종의 중도세계, 윤광조의 도자기에서 우리는 깊은 불교적 친연성을 느낀다.



오영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종교미술 측면에서 일부 상당의 건축, 조각, 스테인드 글라스의 활발한 현

전통과 현대 '동거' 불편하면 분리 공모를...

미술의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바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현대 불교미술 분야는 그 내용이나 참여작가의 양에 있어 빈약함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불미전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하여 현대 불교미술 분야를 없앤다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이며, 이러한 중대한 일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의 절차가 있어야 했다.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모두 부처로 표현한 민화에서 우리는 그 시대 민중의식을 읽을 수 있다. 박생광의 강렬한 색채와 구도에서 우리 전통의 성공적 수용을 볼 수 있다. 많은 현대작가의 작품에서 불교적 세계를 발견한다.

불교는 어느 종교보다 많은 작가들의

대적 수용을 부러워하며, 불교사찰이 더 적극적으로 전통으로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오늘날 여러 종교미술 가운데 불교미술의 현대적 수용이 부족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불교미술전에서 전통 불교미술과 현대 불교미술의 동거가 불편하다면, 따로 분리하여 전통 불교미술전과 현대 불교미술전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불미전이 현대 불교미술 분야를 폐지하고 전통 불교미술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순바탕으로 해를 가리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연대' 민영 심민섭



대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배출되었고... 불교학 석사, 박사, 불교학 홍보단 동국대에서...

우리 가족에게 名品이 있다!

20여년을 오직 한 길로만 걸어온 **성광수의 수신토종오가피!**

챙기셨습니까?

신제품 발매 개시
오가피!!
이젠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챙기세요.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건강상담 무료자료신청 02)447-2004

국회대외경제처 **성광수**

- *국내 최대 규모 오가피 농장
- *2003년 5대 일간지 히트상품 선정
- *오가피 관련특허 보유기업(제0322351호)
- *2002년 월드컵 선수들이 먹은 그 제품
- *오가피전문연구소 개설(제20031860호)
- *과학기술부 연구개발 사업참여 기업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탄!
"500분" 계만!
기회를 드립니다

출고정가 15,000원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 할인)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매처: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www.yosiamun.com)
■ 마하물: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